

얼어붙은 주택경기 봄날은 언제쯤...

광주·전남, 2월입주 여건 '악화'

기존주택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지연 및 입주양극화 위험 확대 우려로 2월 중 광주·전남지역 입주 여건이 매우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지역 분양주택 입주율이 60%대 이하로 떨어지고 주택사업자들이 계약경기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8년 2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에 따르면 이달 전국 HOSI 전망치는 76.2로 전월대비 5.8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광주 전망치는 72.7을 기

기존주택 매각 난항으로 입주지연 확대 우려
2월 전남 입주전망 57.7 전달 보다 20.1p ↓

록하며 전월대비 4.5포인트 하락했다.

광주 HOSI 전망치는 5개 광역시가운데 울산(71.4)을 제외한 대전(83.9), 대구(81.1), 부산(80.5)보다 낮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입주실적이 12월 85.0, 1월 77.8에 이어 2월 전망치도 57.7까지 낮아지면서 입주여건이 나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37.8%로 전달보다 16.1%포인트 상승했고, '세입자 미확보' 31.1%, '잔금대출 미확보' 12.2%, '분양권 매도 지연' 5.4%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입주율이 낮은 이유도 이

같은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의 반응이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주택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 전남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경우 주된 수요층이 도민이라기보다는 다른지방의 투자층을 겨냥한 경우가 많은데 거래가 절벽이라 분양받은 후 되팔지도,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적잖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월 전남지역 입주 전망도 좋은 편은 아니다. 2월 입주경기실사지수

(HOSI)는 57.7로 전달보다 무려 20.1포인트 하락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중에 있는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달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다.

HBSI는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주택사업자가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서미애 기자

주목! 이사람



박태선 농협 전남본부장은 21일 별량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순천농협 과별량농협합병 기념식'에 참석한다.



김일수 농협 광주본부장은 22일 중앙본부에서 열리는 '지역본부장회의'에 참석한다.

하나카드, 금호리조트 이벤트

하나카드는 금호리조트에서 최대 34%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호리조트 통영·화순·설악·제주가 대상이다. 객실 타입은 패밀리·스위트 2가지이며 할인율은 13~34%이다.

사전에 전화 예약해야 하며 객실 예약 시 사우나권 2매를 증정한다.

또 금호리조트 제주와 화순은 실내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 혜택은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하나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 시 할인이 적용된다.

이마트, '스타상품' 선배

이마트는 '2017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상품들이 신세계그룹 유통채널에 정식 입점하기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마트는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추천한 400개 상품 중 청년상인과 중소기업이 만든 29개 예비 스타상품을 선별했다.

이후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월계점을 시작으로 창원점, 양산점 등 3곳에서 '전통시장 푸드 페스티벌'을 열고 브라더새우장, 머스마뽀(뽕밥), 풍드슈(콩스낵) 등 청년상인 예비 스타상품을 판매했다.

오는 4월에는 킨텍스점에 속초관광수산시장맛집인 아임파인쉬프프가 입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예비 스타상품 15개 가운데 6개는 이마트 등에 입점을 마쳤다. 나머지 9개 상품도 상반기 입점 예정이다.

신한카드, 대출 안심보험 제공

신한카드는 6월 30일까지 MF일반대출 상품을 500만원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 '대출 안심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MF일반대출은 신한카드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신한카드가 없어도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안심보험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상환 기간에 사망 또는 80% 이상 중증 장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이 채무액(100만원 이상)의 잔액을 전액 변제한다.

신한카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대출 신청과 함께 신한카드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내 MF일반대출 신청 화면에서 가입 동의만 하면 된다.

농협은행, 무계좌 해외송금 출시

NH농협은행은 무계좌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NH-아그리 무계좌 해외 송금서비스 출시기념 이벤트'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NH-아그리 무계좌 해외송금서비스'는 베트남 전용 송금서비스로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이름과 송금번호만으로 베트남 아그리뱅크 전 지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국민은행과 특별출연 협약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합니다”

광주신보-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이하 광주신보)은 최근 국민은행과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광주신보에 6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광주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9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그 밖에 보증심사 완화, 보증요율 인하 및 보증비율 상향 등 각종 추가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

광주신보 박종광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증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aT 화훼공판장, 소매상 등록제 시행

공판장 운영 활성화·중도매인-회원 상생 도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aT 화훼공판장의 운영활성화 및 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회원 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소매상 등록제란 양재동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소매상(동네 회원)에게는 판매단가를 할인하는 등 일반소비자보다 우대하는 제도다.

aT는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 중 쉽게 소매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목걸이형 회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유형동 기자

회원증 발급을 희망하는 화훼 소매상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3월 5일부터 3월 9일 오전 6시부터 11시 사이 aT 화훼공판장 본관 1층 '꽃사랑 컷터'를 방문하면 증명사진 촬영 후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번 소매상 등록제 시행은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회원 간의 역할분담을 촉진 시켜, 화훼유통의 전문화는 물론 동네 회원의 생존력을 높여 꽃 생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T, 2018 두바이식품박람회 참가

국내 30개 업체 UAE 시장 공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으로의 한국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018 두바이 식품박람회(Gulfood)에 참가 중이다.

aT는 이번 두바이식품박람회에 건강, 신선 등 중동지역 수출 유망품목을 취급하는 30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관을 개설하고 중동시장을 공략한다.

올해로 23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중동 및 아프리카, 러시아, 인도지역을 아우르는 중동 최대의 바이어 전문 식품산업전으로 작년 기준 120여개 국가 5,000개 업체와 9만5,000명의 바이어가 내방한 바 있다.

aT는 건강식품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홍삼제품을 필두로 한 건강기능식품과 할랄인증제품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식품의 프리미엄·웰빙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최근 경제제재 해제로 시장진출 기회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이란을 포함해 UAE, 사우디, 터키 등지의 우수바이어 및 대형유통업체, 외식제인 초청을 통해 기업 상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박람회가 중동시장에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업체의 신규시장 개척과 거래선 확대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형동 기자

중기 68% “가업승계 계획 있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발표...상속·증여세 가장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7곳꼴로 가업을 승계할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점으로는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12월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67.8%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같은 조사 결과(66.2%)보다는 1.6%포인트, 2015년(42.2%)보다는 25.6%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가업승계 의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에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자는 전년(44.2%)보다 12.2% 포인트 증가한 56.4%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완화해야 할 요건이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과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를 들었다.

가업승계 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67.8%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을 꼽았다.

이어 자금, 판로 등 종합적 지원정책

부족(17.4%), 거래처 물량축소, 관계악화(3.0%), 가족(부모, 형제, 친척)과의 갈등(2.8%) 순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과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등을 꼽았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를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광주세무서, 전통시장 세정지원

말바우시장 상인회 애로·건의사항 경청

북광주세무서(서장 박광중)는 최근 북구 말바우시장을 찾아 시장상인회 임원진으로부터 애로·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박광중 북광주세무서장은 직원들과함

께 시장 전체를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하는 한편, 운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 물품 구매를 적극 실천했다.

북광주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

외된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 서장은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전남 장성군 진원면 소재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의 집' 과 한부모 가정(지적장애아 1명)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미애 기자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 ICT융합 기술협력 체계 구축

독일 뮌헨공과대학교와 업무협약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최근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와 에너지신산업 및 스마트시티 관련 ICT융합 기술협력 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사업단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비즈니스캠퍼스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ICT·SW융합 R&D 공동 기술기획 및 인력 교류 확대,

연구결과물 상호제공 및 활용, ICT·SW 융합분야 정보공유, ICT·SW융합 기술 세미나 공동 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 공동 R&D 기획을 통해 지역 ICT·SW 기업의 글로벌화에 적극 힘을 계획이다.

협약에 참석한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국의 상호협력과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전문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형동 기자